

■ 주요 뉴스: 주식시장, 긴축심화 및 기업이익 악화 등으로 반등지속 가능성 감소

- 연준 보우먼 이사, 인플레이션 둔화 전까지 0.75%p 인상을 고려할 필요
- 미국 상원, 인플레이션 억제법 승인 기후변화 대응과 법인세 증세 등에 초점
- 중국 7월 무역수지, 흑자폭 확대 불구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예상

■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7월 고용보고서 결과와 양호한 기업실적 등이 주요 배경
주가 상승[+0.4%], 달러화 강세[+0.7%], 금리 상승[+18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로 기술주 중심 매수세 유입
유로 Stoxx600 지수는 역내 경기침체 우려 확대 등으로 0.6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등이 영향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1.3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용지표 강세에 따른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4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8/5일	7/29일	전주말대비			8/5일	7/29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145.2	4,130.3	0.36%	국채 금리 10y	미국	2.83%	2.65%	18bp
	유럽	435.72	438.29	-0.59%		독일	0.96%	0.82%	14bp
	중국	3,227.0	3,253.2	-0.81%	CDS 5y	한국	40bp	40bp	0bp
	일본	28,176	27,802	1.35%		중국	79bp	72bp	7bp
	한국	2,490.8	2,451.5	1.60%	위험 지표	EMBI+	424	443	-19bp
환율	달러지수	106.62	105.90	0.68%		VIX	21.15	21.33	-0.84%
	유로화	1.0183	1.0220	-0.36%		WTI유	89.01	98.62	-9.74%
	엔화	135.01	133.27	-1.29%	원자재	구리	355.2	357.4	-0.60%
	위안화	6.7619	6.7445	-0.26%		금	1,775.5	1,765.9	0.54%
	원화	1,298.3	1,299.1	0.06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**글로벌 주식시장, 긴축강도 심화, 기업이익 약화, 자금유출로 반등지속 가능성 감소**
 - 국제유가가 2월이래 최초로 \$90를 하회한데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3주 연속 상승하며 6월 저점이후 20% 가까이 반등에 성공하는 등 주가 회복세 지속 중
 - 그러나 향후 방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긴축강도 심화 여부인데 지난 주 고용지표의 예상외 호조에 따라 긴축 가속화 우려도 증가. 특히 1분기 이후 S&P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2.7% 하락한데 이어 추가 약화 가능성도 상당
 - BoA-Merrill Lynch는 8월 첫주 글로벌 주식펀드로부터 유출우위가 재개되었다며 S&P500의 약세장내 반등에 대해 차익실현을 권고. HSBC도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의견을 대폭 비중 축소(maximum underweight)로 변경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**연준 이사, 인플레이션 둔화 전까지 0.75%p 인상을 고려할 필요**
 - 보우먼 이사는 지난 회의에서 0.75%p 인상을 지지했으며,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전까지는 0.75%p 추가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. 한편 연준의 금리인상에도 노동시장 강세가 유지되고 있지만, 향후 고용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
 -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으며, 이를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. 9월 회의에서 인상폭은 회의 전까지 발표될 인플레이션, 고용지표를 참고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
- **미국 상원, 인플레이션 억제법 승인. 기후변화 대응과 세수증대 등에 초점**
 - 상원에서 43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통과. 해당 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, 자사주 매입기업으로 부터의 세입증가 등이 포함.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으로 소비자의 에너지, 의약품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
- **미국 6월 소비자신용, 전월 대비 증가 규모 확대. 고물가 등이 원인**
 - 소비자신용 증가액은 401.5억달러를 기록해 전월(223.5억달러) 및 예상치(250억달러) 대비 높은 수준. 시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차입수요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

■ ECB, 팬데믹 채권 매입프로그램을 통해 170억유로 규모의 취약국 국채를 매입

- Financial Times에 따르면, 6월부터 7월 사이 ECB의 이탈리아, 스페인 등의 국채 매입 규모는 170억유로 규모로 추정. 전문가들은 완화적 조치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유로존 부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

■ 독일 6월 산업생산, 예상치 상회.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둔화될 가능성

- 해당 지표는 전월비 0.4% 상승해 전월(-0.1%) 및 예상치(-0.3%) 상회. Capital Economics의 Andrew Kenningham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가뭄으로 수로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하반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

■ 중국 7월 무역수지, 흑자폭 확대.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세 둔화 예상

- 수출은 전년동월비 18% 상승해 전월(17.9%) 및 예상치(15%)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. 수입은 전년동월비 2.3%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월(1.0%) 및 예상치 하회. 이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1012.6억달러로 전월(979.4억달러)대비 증가
- Pinpoint Asset Management의 Zhiwei Zhang은 수출 증가세가 중국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나, 국내수요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평가.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

■ 중국 7월 외환보유고, 상승세 지속. 외환시장 안정세 유지

-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, 외환보유고 규모는 3.1조달러로 예상치(3.05조달러) 및 전월(3.07조달러)대비 증가. 왕춘잉 부국장은 외환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며, 자국 경제 여건이 외환보유고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5~7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 6월 가계지출(전년동월비): 3.5%, 5월(-0.5%), 예상치(1.5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고용동향지수, 유로존 섹터스 8월 투자자신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마중 경제 갈등,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나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- FT

(The US and China are decoupling, but not as fast as you think)

-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 이후 마중간 긴장이 높아진데 이어 금주 바이든 대통령은 7월 하원에서 통과된 반도체 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)에 서명할 예정
- 동 법안은 미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5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되 해당 기업은 10년간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양국간 디커플링의 상징이 될 전망
- 그러나 중국경제의 고의적인 악화에 대한 우방국들의 부담, 미-중 양국 기업들의 저항, 글로벌 공급망 이전에 소요되는 시간 등 3가지 제약조건들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소음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진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

■ 글로벌 경제둔화 불구 낮은 실업률, 노동력 부족 등으로 당분간 지속 가능성 - WSJ

(Weak Growth, Tight Job Markets Are a Global Phenomenon)

- 최근 선진국 경제는 경제성장 둔화에도 낮은 실업률을 기록. 이는 '08년 이후 고용없는 성장(jobless recovery)과 대조적. 실제로 독일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실업률은 40년래 최저 수준이며 기업들은 인력난에 의한 생산의 어려움을 호소
- 실제로 '20년 2월 이후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 노동력은 큰 폭으로 감소.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이들 국가로의 이민자 유입이 둔화. 이에 더해 미국은 65세 이상 노동참여율 감소로, 독일과 이탈리아는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

■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, 즉각적인 금수조치 등으로 실효성 제고 필요 - Financial Times

(The west's phantom energy sanctions fuel Russia's war machine)

■ 미국 휘발유 소비둔화에 자연적 가격 하락, 향후 공급부족 대처 방안을 시사 - 블룸버그

(US Drivers Are Using Less Gasoline. Let's Keep It That Way)

■ 미국 회사채, 고용증가에 금리인상 시 성장둔화로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 - 블룸버그

(How Long Will the Bond Rally Last?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